

시인의 마을

누군가와 사일씩 눈이 마주쳤는지  
누구나 한 번쯤은 지나가야 하는지  
어깨만 가볍게 스쳤을 뿐인지  
거시기 한 거기에 담은 것이 아침이슬처럼  
익숙한 엘리베이터에 피진 코를 자극하는 향수 냄새에  
심장은 붉게 물들어 왜 이리 터질 것 같은가?  
오늘따라 짧은 인사가 심장을 뛰게 하는지  
그렇지 않은 일시적 통증인 것 같은지  
근디, 고깃이 어찌 거그에 들어와 있는지  
피하려고 하면 우연이라는 핑계로 눈에 들어오는 그것도 그냥저냥 놔두면 지나가는  
벼룩만 한 무개인데  
지나가는 바람비가 그리워 먼 하늘 바라보는 그 날까지  
이름이 거시기한 뒷집 반려견 순진이도 절대 몰라야 하는  
누구도 절대로 몰라야 하는  
깊은 거그 익숙한 거시기

짜사랑



박여범

용북중학교 · 시인  
문학박사 · 문학평론가

붉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 
누구나 하나는 품고 있는데  
소리 없이 다가와 좋아하지만  
절대 모르는 것인디

-박여범 시인 짜사랑 전문

『시조를 받다』

누군가와 살짝 눈이 마주쳤다. 그  
런데 돌아서기가 두렵게 보고 싶어  
안타이 된다. 그렇다며 관심을 뒤  
여 사랑일 가능성이 크다. 얼굴 보  
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 
시간을 늘리고 싶다.  
그렇다면 심장을 뛰게 하는 혼란

심은 어디일까? 누구나 감기처럼  
지나가는 성장통이라 정의하기에는  
너무나 소중한 가까운 시간과 주  
역이다.

연젠가는 스치듯 어깨만 가볍게  
스쳤을 뿐, 그가 누구일까 궁금하  
다. 마치 이러저러 이유를 붙이대  
며 자기의 감정을 이입하는 그런  
때도 있다.

이슬만 껴고 사는 건강하고 생  
기가 넘치는 사랑스러운 이성을 짝사  
랑한 장면이 있다. 오십에 들어서  
다 보니, 익숙한 엘리베이터에 쳐  
진 코를 자극하는 향수 냄새가 역  
겹다.

나에게는 이렇게 역겨운 향수가

그 누군가의 심장은 붉게 물들어  
터트릴 것이다.

오늘따라 짧은 인사가 심장을 뛰  
게 하는 뒷집 반려견 순진이를 만  
났다. 개나 고양이, 돼지 등 반려동  
물이 가족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 
일이 아니다.

이제는 낯선지 않다. 그런데, 언제  
부터인가 순진이가 눈에 들어온다.  
엘리베이터를 통해 다가온 커다란  
눈은 그렇지 않은 일시적 통증이란  
생각이 앞선다.

그런데도 언제인지 모르게 내 허  
락도 받지 않고 순진이는 우연이라  
는 핑계로 순진이가 자리를 잡았  
다.

고깃이 그냥저냥 놔두면 지나가  
는 벼룩만 한 무개라도 지나가는  
가랑비가 그리워 먼 하늘 바라보  
나. 이러한 사실은 이름이 거시기  
한 뒷집 반려견 순진이도 절대 몰  
라야 하는/누구도 절대로 몰라야  
하는/깊은 거그 익숙한 거시기  
는 붉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/누구나  
하나는 품고 있다. 소리 없이 나가  
와 좋아하지만 절대 모르는 것이  
다. 그것이 짜사랑이다.

사설

경기전 수문장 교대의식

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수문장  
교대의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.  
올해로 5년째 계속되는 경기전  
수문장 교대의식은 전주시가 주  
최하고 전문 예술법인 전통문화  
마을이 주관하는 행사다.

올해 경기전 수문장 교대의식  
은 지난 11월 13일 오후 2시에  
첫 선을 보였다. 이어 12월 5일까  
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  
시에 진행됐다.

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전주한  
옥마을 내 태조로와 경기전 정문  
에서 진행되던 순라 행렬과 교대  
의식을 경기전 내 홍살문과 외신  
문 사이의 공간으로 옮겨서 진행  
했다.

경기전 수문장 교대의식은 조  
선시대 왕궁을 지키던 수문장 제  
도를 전주의 특성에 맞게 새롭게  
구성해 선보이고 있다. 이는 수  
문군 순라 행렬과 수문장 교대의  
식으로 이뤄진다.

시작은 경기전 내 외신문에서  
당직 수문군의 근무를 위한 도열  
이다. 초엄, 부신부합 의식과 순  
장패 인계 의식이 거행되는 이  
엄, 당직 수문군과 교대 수문군

의 교대 배치가 진행되는 삼엄으  
로 30분가량 진행된다.

교대의식이 끝난 후에는 전체  
수문군의 순라 행렬이 경기전 내  
를 돌면서 마무리된다. 지난해에  
는 교대의식 진행 중에 영문 해  
설을 더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 
도 정확한 행사 정보를 전달했  
다.

취타대와 기수대, 총의군이 전  
주소리문화관 대문 앞에 도열하  
고 있다가 합천 구령과 함께 경  
기전 정문으로 향한다. 수문군의  
행렬은 한지길에서 태조로까지  
이어지며 당직 수문군과 관리들  
이 늘어난 모습으로 경기전 정문  
을 수호한다.

동시에 대체로운 국악 공연과  
전통 무예 공연도 펼쳐진다. 교  
대 수문군의 순라 행렬이 도착하  
면 본격적인 수문장 교대의식이  
시작되는 것이다.

경기전 수문장 교대의식은 전  
주한옥마을의 대표 문화관광콘텐  
츠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. 전주  
와 경기전 수문장 교대의식에 대  
한 깊은 추억을 남기는 시간이  
되기 바란다.

양지노인복지관 수채화 전시회

전주 양지노인복지관 어르신  
들이 10개월 동안 수채화 실력  
을 갈고 닦아 회원전을 열었  
다. 제1회 하늘빛 수채화 동아  
리 회원전은 올 12월 21일까지  
양지노인복지관에서 열리고 있  
다.

하늘빛 수채화 동아리는 올해  
2월에 개설됐다. 65세부터 82세  
까지, 평균 나이 73.5세의 어르  
신들이 그림에 대한 열정 하나  
로 모였다.

참여 작가는 강병일, 김상기,  
김정춘, 박명숙, 백남구, 오덕환,  
오순희, 오형환, 오희택, 이민아,  
이영순, 이정옥, 이종국, 이진숙,  
이찬복, 이현용 씨 등 16명이다.  
당초 동아리 회원은 총 22명이  
다. 사정상 동아리 회원 전원이  
참여하지 못했다. 회원들은 원  
래 모두 그림을 좋아했다. 그동  
안 힘들게 살아가느라 여건이  
되지 않아 배울 기회가 없었을  
뿐이다.

대부분 학교 다닐 때 미술 시  
간에 조금 배운 것이 전부다.  
수채화를 처음 접해 보는 어르  
신도 있다. 회원들은 서툰 솜씨  
지만 모두 다른 주제로 작품을  
완성했다.

각자의 추억을 담기도 했고,  
그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. 아  
름다운 풍경을 그리기도 했다.  
처음에는 손쉽게 금방 그려내고  
싶은 마음이 많았다. 그러나 물  
이 따라주질 않아 어려움도 많  
았다.

수채화 지도 교사인 신재철 씨  
의 자상함에 어르신들은 10개월  
만에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.  
지도 교사는 "포기하려는 어르신  
들도 있었다.

그런데 차츰 손에 익다 보니  
수채화 시간을 너무 좋아했다.  
지금은 사진 찍어서 자식들이랑  
이웃들한테 보여 주기도 한다."  
고 말한다.

양지노인복지관은 지난 2008년  
에 개관했으며, 현재 사회복지  
법인 삼육재단에서 위탁받아 운  
영되고 있다. 제4대 조휴정 관  
장은 지난 2019년 2월 취임했다.  
어르신 회원들은 모두 마음만큼  
충족이다. 어르신들이 수채화  
작업에 더욱 더 정진하기를 기  
대한다.

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.

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

입기를 마치고 떠나는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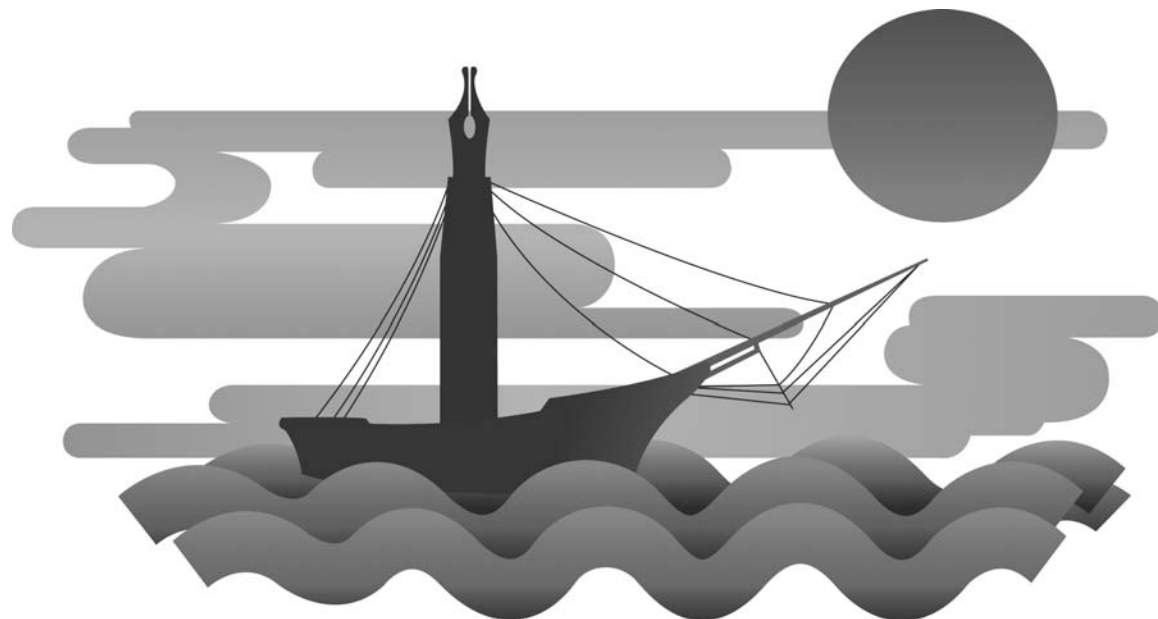


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8일(현지시간) 베를린 총리실에서 울리프 슐츠 신임  
독일 총리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웃고 있다.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스스로 총리직에서  
내려온 메르켈 총리는 첫 여성·동독 출신 총리로 2005년부터 16년간 재직하면서 독  
일뿐 아니라 유럽연합(EU), 나아가 세계를 이끄는 지도력을 보여주고 물러났다.

리옹 빛 축제, 조명 체험하는 방문객들



8일(현지시간) 프랑스 중부 리옹에서 시민들이 아난 조명 쇼를 체험하고 있다. 리옹  
에서 4일간 빛 축제가 열려 시민 등 수백만 명이 이를 즐길 것으로 예상된다.



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

"더 좋은 신문, 더 사랑 받는 신문,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"을 위해  
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 
'전북 최고의 신문'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 
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 
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.

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 
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 
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 
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

인간중심 · 도덕중심 · 지역중심

전주매일